



- ▲ 2012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 전시장 입구
- ▶ 2012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 전시장 내부



## 2012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

명절선물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새로운 선물시장 발돋움 통한 상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

- 일 시 : 2012.08.16~08.19
- 주 최 : 메세 E&D, 대한급식신문사
- 장 소 : 서울 COEX
-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

다가올 추석에 맞아 '2012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이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2012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열렸던 '2012 설맞이 명절상품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된 명절선물상품전이다. 메세 E&D와 대한급식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한 해당 전시는 명절선물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새로운 선물시장 발굴을 통한 상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명절선물산업의 정보교류와 유통 활성화, 전통산업 발굴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전시는 크게 농수축산물관, 건강식품관, 식음료관, 전통상품관, 생활용품관, 주류관, 식품명인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특별관인 식품명인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식품명인' 34인의 고품격 명절선물세트를 선보였고, 각각의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지역별 특산품을 앞다퉈 선보

였다. 농수축산물관에서는 한우등심세트, 보신용 사골세트, 닭백숙세트 등의 축산물 선물세트를 볼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번 전시에서는 오리육 선물세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전시회 관계자는 "지난 전시에서는 오리육 선물세트가 몇 종류 있었는데 이번 전시에는 오리육 선물세트를 전시한 업체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오리육 관련 업체들이 여러모로 분발해서 내년 설맞이 명절상품전에서는 오리육 상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이번 전시의 특별 서비스 중 하나로는 전시장 안에 택배발송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시관람객들이 상품 구매 후 현장에서 바로 택배발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명절선물 쇼핑몰 '지스토어'를 함께 운영하여, 전시 관람 전 상품을 미리 살펴보거나 전시 관람 후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시는 4일 동안만 진행되었지만 쇼핑몰을 통해 1년 365일 명절선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관



지역별 명절선물 상품전시 부스



전시장 내 중앙 휴게 공간



농수축산물관